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h1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div>	<p>2021년 6월 18일(금) (윤력 5월 9일) Пятница 18 июня 2021г. № 24 (1194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2021년 6월 20일에 러시아에서 의료진의 날을 기념할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승리) 광장에서 백신 접종을 위한 모바일 접종소.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현충일 기념, 영화 상영에 초대

1941년 6월 22일은 독일 나치가 소련에 쳐들어와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날이다. 이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 '학이 난다'의 무료 상영이 6월 22일 오후 8시 10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옥짜브리> 영화관에서 있을 것이다.

미하일 칼라토조브 감독의 영화 '학이 난다'(1957년작)는 대조국전쟁 시기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명예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영화 주제는 전쟁으로 헤어진 두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작품은 전쟁이 개개인의 시민에게 미치는 슬픔과 불행은 숨김없이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영화에 있어서의 '해빙'의 대표작으로써 1958년 칸 영화제에서 러시아영화로서는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획득했다.

이번 무료 상영은 전 러시아 '1분 침묵'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2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12시 15분(사할린 시간 20시 15분) 러시아 전역에서 추모와 애도를 위한 1분간의 침묵이 진행된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1941년 6월 22일 오후 12시 15분, 나치 독일의 소련 공격에 대한 정부의 호소가 라디오로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맞이

제32회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을 맞아 6월 2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올림픽 수직 경주와 올림픽 마일 릴레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림픽 마일 같은 경우, 선수들은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시작하여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중앙까지 달릴 것이다. 스타트시간은 오전 10시다. 경주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14세 이상의 5명으로 구성된 팀이 릴레이에 참여하게 된다. 각 선수는 500~600미터를 달리게 될 것이다.

"올림픽 수직 (버티컬)"의 개막은 10시 45분에 고르니 워즈두흐 중앙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경주는 11시에 시작된다. 이 행사는 개인전 형식으로 열린다. 폐막식과 시상식은 중앙광장에서 13시에 열린다. 트랙 길이는 아르메이카 트랙을 따라 300미터이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6월 16일 기준 사할린에서 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1954년 출생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1명이 사망하였다.

44명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6월 16일 기준 사할린주에서 총 2만 3,674건의 감염이 발생해 2만 2,894명이 퇴원했고 58명이 사망했으며 72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친애하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을 기리는 기념일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돕습니다. 사할린 주의 모든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책임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팬데믹 동안 여러분은 특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의료진 여러분들은 모든 도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는 깊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의료 개발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할린 전역에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료기관에 현대 장비를 갖추고, 심층 진단을 위한 센터를 열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기념일 되세요!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 강화

사할린주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사할린 주의 심각한 역학 상황에 주목했다. 6월 초부터 매주 51.8%까지 감염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4,746.11명 발생하여 발생률이 이미 전국 평균을 35.6%(3,499.39) 초과하고 있다.

지적된 바와 같이 사할린 지역의 일일 예방접종 수가 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심각한 제한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다. 러시아의 몇 지역이 이미 이러한 전례를 보이고 있다.

백신을 접종한 사할린 주민(8만여 명)은 당초 백신접종 계획의 30%에 지나지 않으며,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들은 매일 감염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5월에는 연령대별로 발생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먼저 30-49세와 50-64세 연령층에서, 그 다음은 18-29세, 30-49세, 65세 이상 층에서, 현재는 모든 성인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사할린 주 수석 위생사인 올가 푼투소와가 말했다.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서는 인구의 60-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계절에 따른 산업 종사자들의 이동 및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염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사할린 주는 러시아 내

15위로 COVID-19 감염에 있어 위험지역이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사할린주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험군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다.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관리국 올가 푼투소와 국장은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주민은 백신을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에너지산업 및 인프라산업, 상업, 문화분야(극장, 도서관, 전시장), 어린이 캠프 및 놀이방, 세탁서비스, 미용 서비스, 피트니스, 공공 급식, 운송, 공공서비스 등이 있다.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백신을 접종한 이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전체 직원 중 최소 60%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의학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이다.

올가 푼투소와 국장은 사할린 주 역학 상황이 악화되고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역 8위를 차지했다. 5월 11일에 우리는 82위, 5월 22일에는 25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장소 및 기업내 소독 등 지역 내 단속 강화, 위반시 필요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49루블리 3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해마다 6월 셋째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의료진의 날을 기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의사는 존중 받는 직업이다. 사할린 한인들도 자녀들이 의사의 길을 선택하면 무척 좋아했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할린 주립 병원 외과 의사 이세원(세르게이 올레고위츠)이다. 1963년생인 그는 흠스크시 출신이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제 성격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을 가졌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요. 학교 때 이미 의학서적을 읽었고 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라고 이 선생이 '언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는지'란 질문에 답변했다.

이렇게 어머니의 꿈이 어느새 이세원씨의 꿈이 되어버렸다. 이 꿈이 그가 좋아하는 일이 되었다. 이세원씨는 «다시 한번 직업을 선택하려면 꼭 다시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사내라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가는게 더 좋다고 했고, 또한 바로 그때 대학에서 공부해도 군대 복무 연기가 되지 않아서 세르게이는 아버지 말대로 군복무를 마

어릴적 꿈을 이룬 이 세르게이 외과 의사

치고 블라디보스토크 의대에 입학했다.

공부는 재미있었다. 처음부터 외과에 관심이 많아 4학년때 전공을 정할때 망설임 없이 외과에 몰두하기로 했다. 대학 교수들도 이 젊은이가 성실하고 좋은 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제안을 했다. 그러나 흠스크 집에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에 흠스크 중앙구역병원에서의 인턴을 선택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이 있었지만 세르게이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 일할 수가 없었다 한다.

이렇게 세르게이는 1991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흠스크 중앙구역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약 15년 일했다. 세르게이 선생님의 생각에는 지방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전문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급하면 어려운 수술도 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되고 의사로서 성장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6년에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철도병원 원장에게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르 마르켈로브 원장이 주립병원 원장(수석 의사)으로 부임됐을때 이세원 의사를 주립병원으로 불렀다. 세르게이 올레고위츠가 그 분을 따라간 이유는 원장이 주립 병원에서 새로 내시경 과를 열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문제로, 그리고 마르켈로브 병원장이 일찍 사퇴

를 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내시경 수술을 위한 일부 최고급 장비는 구입할 수 있었다.

세르게이는 항구도시 흠스크에서 살던 학생시절에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기도 했다.

«우리 넷은 연구를 위해 바다를 항해하는 원자력 쇄빙선 같은 큰 배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전공한 대로, 저는 의사, 다른 친구는 엔지니어 등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배에서 일한 적은 있었다.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진 1990년대였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월급을 매월 받지 못해 먹고살기 위해서 의사, 교사 등 포기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가끔 월급을 돈이 아니라 물품으로 받기도 했어요. 제가 8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흠스크에서 근무했는데 휴가를 받아 선박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다녔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 항구에 내리면 짐 싣는 일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요. 그래도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라고 이 세르게이 선생이 말하였다.

'기다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

그가 왜 외과를 선택했나 하면 '외과에서는 가장 빨리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환자가 완치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일반 외과 의사라서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정해진 수술도 있지만 응급 수술도 많다. 주립 병원이라 당직하는 날에 구급차에 실

려오는 응급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당직 날에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주립 병원이라 지방에서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응급환자가 많다.

작년에 이세원 씨가 주립 외과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그 이후 외과 의사들이 한명씩 감염되었다. 원래 외과에 정직 의사 5명, 밤에만 또는 주말에 일하는 당직 의사 3명이 있다. 정직 의사 같은 경우, 평일(주에 5일) 출근하고 당직 있는 날에는 밤에도 일한다. 당직이면 아침에 출근하고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다.

작년 4월부터 팬데믹 시기에는 거의 4개월동안 외과에는 세르게이 선생님과 또 다른 의사 선생이 단 둘이 일했다. 게다가 아니와, 코르사코브 등 병원이 코비드치료병원으로 되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전부를 주립병원으로 보냈다.

세르게이 선생 말처럼 '너무 힘들었다. 겨우 버텼다. 병원에서 살림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아무리 자기 직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직업의 단점은 계속 환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도 사람인데 하소연을 듣다보면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잔을 하는데 세르게이 선생은 야외에서 혼자 즐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시간이 소중한요. 생각도 많이 하고 독서도 즐깁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전자기기를 좋아해요.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해요.»라고 세르게

이 의사가 정신과 체력을 보충하는 법을 알렸다.

그는 박사 논문을 시작한 적도 있었다. 자기 일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 라 특히 최소 침습과 복부 수술에 관심이 많다. 수술경험이 많아서 2006년에 그는 탈장 수술 봉합을 새로 만들었다. 이론연구보다 실질적으로 개발한 것을 더 좋아하고 이걸 논문 주제로 하기로 했다. 논문 절반을 쓸 때 갑자기 지도교수가 사망하여 그는 이 논문을 포기했다.

이 세르게이 선생은 «의사는 가장 좋은 성품 - 친절함, 착함, 사람을 도와야 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배려 등등 - 가장 좋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환자를 대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무 당에 속하지 않고 비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토로했다.

의료는 그의 인생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아내도 있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버지로서 그는 아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아버지와 소통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구세대 아버지와 아들은 보통 서로 어려워 하는 관계다.

1933년생인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7살 위였고 57세에 너무 일찍 별세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흠스크 시의 선박 수리 공장에서 일했다. 부지런했고 뭘 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 이 면에서 세르게이가 부모를 닮았다 한다.

아이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자기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산의 왕'에 도전

크로스컨트리 2종 경기 "산의 왕"이 6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볼셰비크 산 고속 등반으로 스스로를 시험하기 희망하는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전에는 정상부 도달 혹은 개인경주, 업힐 형식으로 개최했으나 사할린주 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종목들을 결합하기로 결정하여 이번과 같은 형태의 대회는 처음으로 열었다.

알렉세이 보젠코 트라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은 "우리는 멋진 리조트가 도시 중심에 위치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고 있다. 이를 행사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앞으로 '산의 왕' 행사가 지역에서 인기있는 행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현재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이 유행이고, 도전 트랙은 길이 4500미터, 높이 약 550미터의 등반 트랙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크로스컨트리 2종 경기는 두 종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오르막이다. 선수들은 스포츠관광단지 '고르니 워즈두흐'의 하단부에서 출발해 자전거를 타고 중앙부까지 올라갔다. 해당 노선의 길이는 1800미터이다. 이곳에는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놓고 신발을 갈아 신고 볼셰비크산 정상의 결승선까지 2700m를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재정비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선물이 수여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피니쉬 메달이 수여되었다고 주스포츠부가 전했다.

За звание "Царя горы" поборол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росс-кантри дуатлон "Царь горы" состоялся в Юж-

но-Сахалинске 12 июня.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40 желающих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скоростном восхождении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первые — прежде вершину покоряли либо отдельно бегом, либо в формате апхилла. Совместить эти две дисциплины реш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иатлона.

— Мы живё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располагается такой курорт, и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неправильно, — рассказа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триатлона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Царь горы" в дальнейшем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Ведь сейчас идёт мода на преодоление себя, а мы даём людям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 трасса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4500 метров с набором высоты около 550 метров.

Кросс-кантри дуатлон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дисциплин. Первая — апхилл. Спортсменам был дан старт от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уда им предстояло на велосипедах добраться до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и комплекса. Протяжённость трассы — 1800 метров. Здесь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ла транзитная зона, где можно было 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железного коня, переобуться и приступить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 забегу на 2700 метров до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где располагался финиш.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медали финишёро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해외 휴가 비용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이라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할 여유가 있는 사할린 주민들은 터키 여행제한 기간이 연장되면서 바꾸쳐 가격이 올랐다는 장애요소에 더 대비할 필

가 있다. 터키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을 후, 다른 해외 여행 평균 비용은 평균 10% (2주간 2인 여행권 16만 5천 루블리까지)증가했다.

〈코메르산트〉지의 분석가들이 5월 말과 6월 초의 같은 코스 여행 비용을 비교한 것을 보도했다. 튀니지 관광은 가격이 44%, 키프로스 관광은 25%, 쿠바 관광은 12%, 이집트는 5% 증가하였다.

터키는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내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다. 5월 31일 작전본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제한정책은 6월 21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스탄불 정기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항공기 운항 재개는 7월로 예상되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다.

터키로의 여행이 제한되는 기간동안 러시아인 대상 여행사들의 부채는 약 300억 루블리이다. 이는 인기있는 터키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한 100만명의 러시아 시민을 말한다.

Отдых за границей стал еще дороже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зарубежный отдых в условиях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нуж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еще к одному препятствию: путевки еще подорожали из-за продлени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ездки в Турцию. После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границу не откроют, стоимость отдыха на других зарубеж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ыросла в среднем на 10 %, до 165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неделю на двоих.

Аналитики сравнивали стоимость одних и тех же туров в конце мая и начале июня, сообщает «Коммерсант». Туры в Тунис подорожали на 44 %, на Кипр — на 25 %, на Кубу — на 12 %, в Египет — на 5 %.

(8면에 계속)

2020년 주 예산, 판데믹 기간 150억 루블리 감소

지난 6월 11일(금) 2020년 주예산 시행에 관한 공청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판데믹 기간 동안 사할린 지역 예산은 150억 루블리 손실되었고 주 예산은 약 1442억 루블리였다. 이 같은 감소는 제품분배에 대한 협정에 따른 수익성이 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비자원 경제 분야에서 220억 루블리 이상의 투자가 몰렸다. 이에 대해 사할린 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수상(총재)이 공청회에서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경제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 대책을 세우고 주예산 1,762억 루블리 규모의 지출내역을 전액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알렉세이 벨리크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 프로그램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지출을 최적화하고, 지역 세수의 5%를 재정 예비금으로 만드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많은 우선적 조치들을 포기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른 정비 및 개별구매 기관의 소재·기술기반 강화, 여비 또한 축소됐다. 당국과 국가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재고되었다"고 벨리크 수상이 덧붙였다.

"2020년에는 주예산에서 910억 루블리 이상을 사회 분야에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 기존 지원책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원책을 도입했다. 오늘날, 사할린 주에는 약 200개의 지원책이 있다. 지급받는 사람 수는 24만 5천 명 이상이다. 의원들과 함께 시작한 주요 대책으로는 3~7세 아동에 대한 지원금, 출산지원금, 휴가 지원 등이 있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으로 공공분야(예산지원 기관)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달성한 지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벨리크 수상이 말했다.

올가 로파티나 사할린 주 재무장관도 공청회에서 연설을 했다. 언급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사할린 지역은 사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간이과세제를 적용하는 기업인의 경우 세금이 6배 감면되었다. 총 21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

책이 제공되었다.

2020년에는 학교 3개(총 1,290석), 유치원 하나(110석), 양로원, 의료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 총 67개 시설이 새로 건축되고 운영되었다. 사회주택 건설 수량으로 볼 때 사할린 지역은 극동연방구에서 선두주자 중 하나로 2020년 435,100㎡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준공됐다.

주택공공경리에 대한 비용은 285억 루블리에 달했다. 이 중 34억 루블리는 645개 아파트 건물의 전면, 내부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지붕, 지하실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배정됐으며, 19억 루블리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출되었다. 해당 자금으로 230개의 주택 단지 내 마당 및 32개 공공부지가 보수되었다.

올가 로파티나에 따르면 2020년 사회복지사 평균 급여는 81,108 루블리, 일반교육기관 교사 90,931 루블리, 의사 177,761 루블리였다. 지난해 예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퇴치하는데 13억 루블리가 추가로 배정됐다. 또한 연방예산에서 이 목적으로 28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주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예산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20년 소득의 집행은 거의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99.4%인 1,618억 루블리에 달한다고 장관이 말했다.

보고 이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교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알레리 스피체코 주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 스키와 조난노예 등의 착륙지가 복구됐으며 112km의 지방도로도 보수돼 1000km가 넘는 자치체의 도로망 정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약 58억 루블리가 항공, 해상, 철도, 도로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해 할당되었다.

공청회에서 주 두마에 "2020년 사할린 지역의 지역 예산 집행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6월말까지 심의할 것이다.

페르미 센터, 사할린 주민들의 정체성 연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우랄 지부 페르미 연방 연구센터에서 러시아과학원의 지역 정체성, 민족정체를 비롯한 지역기회 추진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4-16일간 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페르미 연방 연구센터의 표트르 파노프 정치박사와 페르미 국립연구소 콘스탄틴 솔리모브 준박사 등이 사할린을 방문해 여러 기관과 단체를 취재했다.

지난 15일 우랄 연구자들은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사할린인인, 그리고 사할린 주민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할린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치와 지위, 한민족지 활동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바베큐의 날, 최고의 소시지와 꾸빠띠 선정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난 6월 12일 열린 올 시즌 첫 박람회 주제는 바베큐의 날이었다. 돔 톨고블리 상점 근처 현장에서는 축제 행사와 콘서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요일의 주요 행사는 시식과 인기 투표였다.



우리사 팀은 이 박람회의 손님들을 위해 40킬로그램 이상의 소시지 및 꾸빠띠를 준비했다. 바베큐를 위한 제품은 4개의 사할린 기업 "파브리카 브쿠사(맛의 공장)", "하나안", "벨로루스키 피르멘니", "졸로또이 텔료노크(황금 송아지)"가 제공했다. 시식 참가자들은 모든 샘플을 맛보고 마음에 드는 음식에 투표하도록 했다.



"각 제조사들은 자체 레시피를 개발하고 제공했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가 준비되었다. 이는 야외 바베큐 파티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라고 예브게니 웰루드코브 주방장이 말했다.

대회 결과로는 두개의 참가 기업이 같은 투표수가 나와 우승을 나누었다. 우승자는 '졸로또이 텔료노크'와 '파브리카 브쿠사'였다.

박람회의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고기 요리와 여러 음식들이 소개되었다. 박람회에서는 생선, 저장식품, 고기, 빵 및 제과제품,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에 정원사 및 농업인들의 자체 생

산품과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에서 보도했다.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MOU 체결

- 재외동포 관련 자료 연구 및 인적 교류와 디지털 정보자원 공유 등을 위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재외동포 관련 자료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및 자료의 공유와 연구를 위해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홍보문화조사부 김봉섭 부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전시·디지털아카이브 실무추진단 송석원 단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 임치균 부원장, 심재우 기획처장, 윤진영 한국학사전편찬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자료 연구 및 인적 교류, ▲자료 수집 및 보존 등 공동 노력, ▲디지털 정보자원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협력, 콘텐츠 활용 기관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잘 보관,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우리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78년 창설 이래 한국학 지원·국제교류 사업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계한민족문화대전 등 한국학 사전 편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우정마을 행복학습관이 지난 10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우정마을 행복학습관은 사할린 어르신 6명과 한국 어르신 4명이 자서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호 교류하며 추억을 회고하는 등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30회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일대기를 글로 작성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한 참여자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부모세대의 한을 가진 우리 사할린 후손들이 고국 땅에서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 "한글을 쓰기가 서툴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평화를 상징하는 해마루촌과 러시아의 강제 징용의 피해자인 사할린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사업을 파주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경기인터넷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День России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озобновлено проведение самого масс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е –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ы —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еджон (Школа Вон Гван).

Как и все предыдущие фестивали праздник продолжил традицию, но с учётом слож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столице. 5-тысячную арену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ЦСКА заменили на расположенный поблизости уютный зал финансов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ст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ся и формат события. Эпицент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не просторное поле, а сцена.

Это праздник единения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народов, на котором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традициями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украс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ей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барабанщиков, ансамбля балалаечников, группы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демонстрац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стюмов ханбок, изготовленных слушателями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одельера Ли Хе Ми в содружестве с её российской коллегой Еленой Теплицкой.

А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выход на сцену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России Аниты Цой, блеснувшей исполнением и собственными песен, и мировыми хита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мелодиями.

ИА РУСКОР



Продолжаем публикацию работ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Пишем вместе".

Проба пера

Моя мама

Ким Людмила, 1954 г.р.

Моей маме 92 года и живёт в Ансане. За ней сейчас ухаживает моя средняя сестра. Когда вспоминаю маму, то мне хочется сравнить её с мягким тёплым и добрым медвежонком, от которого исходит столько тепла и света. Мама небольшого роста, слегка пухленькая, всегда ходила быстрой походкой и немного вперевалочку.

Мама вышла замуж в 16 лет и родила шестерых детей – двоих сыновей и четверых дочерей. Конечно, маме нелегко было одной на чужбине растить,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реднеспециальное 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апа работал на заводе, а потом на стройке бригадиром. Но я никогда не слышала от мамы, чтобы она когда-либо жаловалась на то, что ей тяжело.

Она не ласкала нас в детстве, не обнимала, но мы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и материнскую любовь и заботу. Мама была очень сдержанной и все свои эмоции держала внутри себя.

Мама была очень трудолюбивой и,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занималась земледелием – выращивала овощи и продавала их на рынке, а на вырученные деньги покупала продукты. Помню коробку мандарин и ящик северокариейских яблок, застеленный стружками.

Еда у мамы всегда была очень вкусная, всегда накормит, напоит, когда приходили к ней в гости.

Мама не заставляла нас работать, а молча старалась делать всё сама. Но инициативу мы проявляли сами. Например, глядя, как она белит или красит стены дома,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могала ей, и мне это нравилось. Впоследствии, в замужестве, я у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гла дома делать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Я двадцать лет прожила в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одителями мужа.

Где-то в 1979 году моя маленькая дочь заболела, и врач назначил уколы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Мне приходилось утром и вечером возить в коляске дочь в поликлинику, стоять в очереди, чтоб сделать укол и я вдруг вспомнила, что это могу сделать и сама, ведь мне приходилось наблюдать, как мама делала нам уколы.

Мама была немногословной, но мы как губка

впитывали от неё все самые хорошие качества: порядочность, честность, искренность. Когда мы у мамы спросили, уже повзрослев:

– Мама почему вы нас ни к чему специально не учили ?

– Зачем? Когда настанет время, вы сами всему научите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и было.

Мама никогда нас не ругала, не кричала, но мы старались не огорчать её. И мы всегда были примерными детьми, учились хорошо, на родительские собрания ходил папа, и он радовался и гордился нашими успехами.

И все, чему я научилась – это благодаря маме. Она была для меня примером хорошей жены для мужа, хозяйки для семьи, матерью и даже хорошей свекровью.

Когда жила в Ташкенте, у нас постоянно были гости –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седи, друзья и всех их встречала гостеприимно, угощала, а также почтила свекровь и свекра, как меня учила мама, и они ко мне относились хорошо.

В 1995-м году,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я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а назад на Сахалин, так как у меня тут были мама, сестры и братья. Они все нас поддерживали, особенно моя мама.

Сейчас мои дети выросли, у них свои семьи и живут отдельно. Но если я хочу испечь пирог и приготовить что-то вкусное, то я тоже прежде всего думаю о детях, внуках, и мне хочется их побаловать, накормить, а также с собой дать, если останется. И это то, что я наверное переняла от своей мамы.

Даже будучи беспомощной, она не хочет нас тревожить. Когда мы по видеосвязи звоним и спрашиваем:

– Мама, как дела ?

Она всегда отвечает: "Хорошо".

– Как здоровье ?

– Нормально.

– Как ноги ?

– Ничего, хорошо.

Никогда не пожалуется. У неё всегда всё хорошо. Вот такая она у нас – наша мам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епископ назначен на высокий пост в Ватикане

Папа Римский Франциск назнач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епископа Лаццаро Ю Хын Сика новым префектом Конгрегации по делам духовенств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1 июня пресс-служба Ватикана. 69-летний Ю Хын Сик, глава католической епархии города Тэчжона, также назначен архиепископом. Он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цем, назначенным на должность секретаря Ватикана. Конгрегация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дзор за священниками и дьяконами, не принадлежащими к религиозным орденам, которы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400 тыс. человек по всему миру, а также за католическими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Ю Хын Сик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вящ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тесные связи с Папой Франциском. Он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о время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молодежи в Рио-де-Жанейро в 2013 году. Папа посе-

тил Южную Корею в 2014 году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Ю Хын Сика.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новый префект Конгрегации по делам духовенства обещал помогать Папе Франциску, католическим священникам во всем мире и управлять католическими семинариями. Он планирует отправиться в Рим в конце июля, чтобы вступить в должность, заменив итальянского кардинала Бениамино Стеല്ല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здравил Лаццаро Ю Хын Сика с назначением на высокую должность в Ватикане.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телеграмме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назначение –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й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но и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потому что это повысило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ус».

KBS World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м туристам открывают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в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Южная Корея планирует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разрешить групповые зарубеж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оездки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в страны со стабильными мерами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План возник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уровня вакцинации в стране в 16,5 процента. Также план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усилий по возрождению воздушных путешествий и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ма,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андемии.

В министерствах транспорта и культуры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собираются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Сингапуром и Тайванем, о разрешении групповых поездок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готовит соглашения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такими как Таиланд, а также с имеющими протекторат США островами Гуам и Сайпан.

По достиже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траны могут открыть границы друг для друга и их граждане смогут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по прибытии.

Территории США, такие как Гуам и Сайп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же делают исключения от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прибывающим пассажирам, получившим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ами Pfizer, Moderna и Janssen.

Получившим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и невакциниров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пока ещ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ходить тесты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аэропорту и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ИА РУСКО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ве Кореи выбыли из борьбы за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ады-2032

Две Кореи выбыли из борьбы за проведени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32 г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10 июня Испол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МОК)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Игры в австралийском Брисбен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отборочной комисси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21 июля на сессии МОК в Токио.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Сеул и Пхеньян впервые заявил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сти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32 год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заявлением выступил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о итогам 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Пхеньяне.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Корей передали совместную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Игр в штаб-квартиру МОК в Лозанне. Помимо двух Корей и Австралии, интерес к проведению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32 года проявили Венгрия, Индия, Индонезия, Катар, Германия и Китай.

Мун Чжэ Ин: Если Пхеньян согласится, Сеул поставит ему вакцины против COVID-19

Если Пхеньян согласится, Сеул поставит ему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акцин против COVID-19.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14 июня в Вене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езидентом Австрии Александром Ван дер Белленом.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РК сможет стать глобальным центром производства вакцин. В этом случа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партнёров. СШ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еула с Пхеньяном. Если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асширится,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иалогу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 добавил Мун Чжэ Ин. Австрийский лидер поддержал точку зрения сво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г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страны мира должны приложить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пандем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важно, чтобы все страны получили вакцины,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В ходе саммита Мун Чжэ Ин и Александр Ван дер Беллен обсудил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и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ах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добиваться нулевых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братился к Австрии, мировому лидеру в области разоружения 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 поддержкой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зидент Австрии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сле саммита в присутстви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состоялось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й об избежании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стретился с канцлером Австрии Себастьяном Курце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д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активизиру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ни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твет на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и в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отраслях,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моб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публиковало план по вакцинации на третий квартал

17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публиковало план вакцинации населения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В нём подробно указаны объекты прививок,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и виды вакцин.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рививались люди, входящие в группу риска.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начнётся вакцинация первой дозой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59 лет. Среди них первыми вакцину получа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от 50 до 60 лет - около 8 млн 600 тыс.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новому школьному семестру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с июля по август,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акцинация сотруд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учителей и другого персонала школ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30 лет, а также ученико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Кроме того,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прививку получат люди старше 60 лет, а также работники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сфер обслуживания младше 30 лет, которые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не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являло о планах к сентябрю завершить прививку первой дозой вакцины 70% населения. Это примерно 36 млн человек.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к ноябрю эт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Сон Ган Хо - член жюри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Сон Ган Хо вошёл в состав жюри 74-го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6 по 17 июля. Полный список членов жюри во главе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кинорежиссёром Спайком Ли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Сон Ган Хо станет пятым по счёт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К - членом жюри в Каннах после режиссёра Син Сан Ока в 1994 году, режиссёра Ли Чхан Дона в 2009 году, актрисы Чон До Ён в 2014 году и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в 2017 году. Он такж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презентации фильма-катастрофы «Чрезвычайная ситуация», включённого во вне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RKI)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ью

Состоялась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горя Самкаева и губернатора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я Куйвашева.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Александр Харлов, глав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Алексей Орлов и министр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Козлов.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тенциал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елик.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треть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а по некотор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даже вторая. Увере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ь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же выражали желание работать», - сказал Игорь Самкаев.

В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содействию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ктивно ведётс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специалистов Свердлов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линикой Северанс по программе «Телемедицина»: проводятся консульт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инфор-

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исходит обмен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 целях диагностики, лечени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Более того, Почетный консул, а также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орейский Фонд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ткрытию значимого д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уч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на базе УрФ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план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егион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тороны у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губернатор пригласи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к участию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форуме 100+ TechnoBuild, который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т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и - к участию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выставке ИННОПРОМ,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в июле 2021 года.

ИА РУСКОР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может верну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назначением ветерана дипломатии Сун Кима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жо Байден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айден сделал неожиданное объявление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Муном в Белом доме в минувшую пятницу. Мун приветствовал реш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как желание строить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Мун назвал назначение Кима «неожиданным подарком», что поможет верну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Однако Ким пока продолжит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посла США в Индонезии. «Он напоминает мне Стивена Босворта, который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лся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деканом колледж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амы», - сказал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Пост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оставался вакантным четыре месяца, что породило слухи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в нижней части списка приоритетов Байдена.

Родившийся в Сеуле Сун Ким являлся главным ядерным переговорщиком США и послом в Сеуле. Он встреча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о Сон Ху в пограничном селении Пханмунджом в мае 2018 года для выработки проекта соглашения накануне первого саммита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Сингапуре.

ИА РУСКОР

Бизнес настаивает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эсоне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он Ён Кил намерен посетить СШ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поисках поддержки в возобно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пограничном городе Кэсоне.

Он сообщил об этом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в комплексе,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го была остановлена в феврале 2016 года после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Севера.

Владельцы бизнеса приз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йти пути возмещения финансовых потерь, вызванных закрытием 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которых трудились десятки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Я надеюсь, мы сможем найти ключ до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 Чжэ Ина, используя содейств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жо Байден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

сказал Сон. - «Я собираюсь посетить США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он не уточнил детали визита, но сказал, что будет искать 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тобы проложить путь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На встрече бизнесмены призвали Сона содействовать норм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а и принятию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о компенсациям их финансовых потерь, оцениваемых в 23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US\$206 миллионов).

«Если каждый сдастся, кто тогда будет доверя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заниматься проектам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задал вопрос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изнесменов Ли Чжэ Чол.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что понимает их агонию и передаст их треб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А РУСКОР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е полугодие — 549 руб. 3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вают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ахалинск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отмечает тревожную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С начала июня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ей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сь с еженедельным приростом до 51,8%. Показател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на 100 тысяч жителей (4 746,11) уже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ий по стране на 35,6% (3 499,39).

Как отмечают в ведомстве, если не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ежедневно вакцинируем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риск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ерьез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 регионе. Напомним, по этому пути уже идут отдельные субъекты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направи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комендацию по созд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иммунизации граждан.

Более 80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30% от плана), привитых с начала кампании по иммунизации, не смогли создать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Граждане, не вовлеченные в процесс вакцин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ежедневно пополнять статистику заболевших.

– В мае при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тмечался 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Сначала среди лиц 30-49 лет и 50-64 года, затем – среди лиц 18-29, 30-49 и 65+, после – по всем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взрослых, – отметила главный санитар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устойчивую защиту, необходима вакцинация не менее 60-70% населения. Сезонная миграция, прибытие рабочих на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омыслы, циркуляция различных штаммов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среди непривит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данным мониторинга территор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15 место и входит в число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по COVID-19 регионов.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комендаций областного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сахалинская против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при КЧ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введ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 В регионе усиливается контроль,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рейды по проверке соблюдения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езинфек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 принятием ме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при выявлении нарушений. Из-за осложн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добные меры вводятся и в ряд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казала Анна Михе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Чтобы усилить кампанию по вакцинации,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мониторинг привитых сотрудников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нформацию направят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Эти данные по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процесс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иммуниз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требования по соблюдению санитарно-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касаются и предприятий, привлекающих сезо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Для таких лиц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по тестированию и вакцинации. Аналогичные меры предписаны и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чьи сотрудники возвращаются из отпуска, проведенного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нести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ение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при одновременном нахождении граждан из расчета 1 посетитель на 4 кв. м.

Команда из Ноглик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ем Кубка Губернатора по хоккею

Финальный матч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хоккею «Кубок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шел на льду спортшколы «Кристалл». За главный трофей турнира сражались команды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Ноглики, и «Океан» из Невельска. Награду победителям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Хочу всех поздравить с праздником!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День России. Хоккеисты – боевой народ. Сегодня они провели замечательную встречу и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Победи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ильнейши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звездой» и «Океаном» состоялась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Тогда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оглик. Одна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Кубок, необходимо одержать две победы.

Сегодня матч начался активно. Команды поочередно атаковали ворота соперников. Счет был открыт на 12 минуте первого периода «Северной звездой», а спустя еще шесть минут в ворота «Океана» отправилась вторая шайба.

Ногликские хоккеисты не сдавали обороты и во втором временном отрезке. Всего спустя минуту после стартового сигнала счет стал 3:0. В третьем периоде «Океан» смог разгромить счет, но на исход игры это не повлияло. 3:1 после финального свистка.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хоккею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 апреля. В этом году за награды турнира боролись девять команд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Углегорска,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а, Ноглик и села Троицкое.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0 году сохранил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во время состоявшихся в регионе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об исполнении бюджет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едше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читалось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за исполн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 участию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епута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2020 год стал непростым для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ррективы в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несли пандем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и рекордное падение мировых цен на углеводороды. Однако комплекс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редпринят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позволил обеспечить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полное исполнение всех расх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 Нам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 Оплата труда всех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была увеличена на 3%. Стали приводиться в порядок дворы, ремонтироваться дороги, жилищный фонд. Вс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оптимизации расходов бюджета и определению целевых приоритетов.

Самым финансовоемким остался социальный блок. Расходы на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составили половину всех расходов бюджета – 9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очти на 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были увеличены средства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еления, что позволило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ть все действующие меры, но и ввести новые.

За отчетный год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67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3 школы на 1290 мест, детский сад на 110 мест, дом ветеранов, медицинские объекты, объекты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о объем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 в 2020 году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435,1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ых домов.

Расходы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или 28,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з них 3,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правлены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фасадов, внутридомовых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крыш, подвалов 645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правлено 1,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За счет указанных средств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230 дворов, 32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112 км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обеспечено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жной се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олее 1 тысячи км. На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воздушных, морски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еревозок направлено порядка 5,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гиона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устойчивость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бюджета, – резюмировала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 Исполнение доходов в 2020 году обеспечено практическ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на сумму 161,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9,4 процента.

В ход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й ответы на свои вопросы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В завершении обсуждений участник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иня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полн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Народные избранники планируют рассмотреть его до конца июн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День России чествовали людей,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госучреждения и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перв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 Каждый, кто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этой церемонии, вносит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й любимой страны 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я рад в этот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вручить вам почетную награду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 такой командой в наших силах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и России в целом становилась вс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и благополучно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о время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по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же вручил статуэтки в виде маяков победителям и лауреатам из районов.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маяков на сче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29 победителей и 7 лауреатов.

Высокое звание «Человек года» завоев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инфекционис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Солонина. Лауреатом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стала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екабрина Пушкарева. Им собравшиес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аплодировали стоя.

Самой «Доступной поликлиникой» признали детскую городскую, а «Лучшей больницей» стала детская област-

ная.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отличились гимназия №1 имени Пушкина, Сахалинский промышл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техникум и дворец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ый педагог» стал учитель химии и биологии гимназии №3 Лев Баранчук-Червонный. Его ученики становятся приз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успешно сдают ЕГЭ, а одна из его учениц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а на экзамене максимальные 100 баллов. 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акже обучает ребят игре в шахматы и организуе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На церемонии чествовали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номинации «Преодоление» лучшей признали серебряного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порт глухих) Карину Гайдамазук. Лучшим тренером паралимпизма стал Алексей Власов. А в номинации «Наставник» победил отличник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Ким Ден Тхе. Среди учреждений маяков удостоились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Сахалин» и школа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Лучшими соци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изнал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Преодоление» и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сред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Родные люди». Эта патронажная служба организовала школу сиделок, которые потом заботятся о пожилых людях и инвалидах на дому.

Лучшим стартапом назвал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Айна тур».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Алексей Ткаченко возрождает ездовой спорт, оленеводство и традиционные ремесла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маяке» поощрили также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волонтеров. Награду в номинации «Помогать просто» получила фельдшер, руководитель «Волонтеров-медиков» Ксения Величковская. Среди предприятий отметили компанию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и ее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лечения детей.

Звание лучшего серебряного волонтера получила Наталья Суворова – координатор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медицине.

– Это очень почетная награда. Но это не только моя заслуга, но и всех моих коллег. Около двух лет существует наше объединение. И мы понимаем, насколько это важно, когда с человеком, попавшим в беду, рядом оказывается волонтер,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проводит, откликнется здесь и сейчас. Я помню, как узнала, что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Ехала в автобусе и следила за результатами онлайн. Увидеть свое имя было невероятно радостно,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Суворова.

Номинация «Энергия молодых» покорила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му отряду «Сова» и президенту федерации армейского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Евгению Пряхину. В номинации «Память поколений»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военно-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Десантник».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одержало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признали «Лидеро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осьмерых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ощр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за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масштабного конкурса.

С 15 июня стартует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1». Ежегодная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новь объединит лучш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Цель конкурса – раскрыть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й области, чтобы ими гордилось не только их ближайшее окружение, но 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Долинске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сквер Славы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тало победителе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 площадке, где будут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сквер,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ажно, что именно люди решают, каким должно бы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круг. Комфортный город – это город,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всем потребностям свои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й слышит и учитывает их мнени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квер Славы поддержали 1064 человека из 2254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монт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обустройство зон отдыха,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ллеи, озеленение. Стелу «Памяти павших будьте достойны» обновят – ее дополнят георгиевской лентой. Отремонтируют облицовку ступеней памятника. В сквере разместят мемориальные доски памяти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белиск «Капсула времени». Зеленые насаждения будут максимально сохранены, при этом прове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зеленение.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а Славы требуется 1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за проекты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оголосовали более 47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На выбор островитян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43 объекта, в среднем по 2-3 от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ЖКХ региона Наталии Куприной,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предстоит выбрать подрядчиков, чтобы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카자흐스탄서 '2021 통일 골든벨' 개최

민주평통 카자흐스탄지회와 카자흐스탄한인회 공동 주최코로나19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

카자흐 재외동포 및 고려인 청소년 45명 결선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카자흐스탄지회(지회장 김상욱)는 지난 6월 5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 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알마티, 누르술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대회 참가를 신청한 76명 중 45명이 결선 대회에 참가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과 역사, 시사상식,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

식을 겨뤘다. 또한 심사위원 6명이 온라인 대회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공정한 대회 진행을 도왔다.

문제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제 중 46문제를 선별해 출제됐으며, 특별히 구흥서 주카자흐스탄대사와 김흥수 주알마티 총영사, 강병구 카자흐스탄한인회장 등이 영상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평화상은 윤여준(TSIS, 9년) 학생이, 우수상인 통일상은

강대환, 최연우, 최연진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한인회(회장 강병구)가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나항공, LG전자, 신한은행 카자흐스탄지점, 롯데라하, 알마티한글학교 등이 후원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롯데 라하이 제공한 선물세트와 추첨을 통해 서울-알마티 왕복 항공권, 진공청소기, 무선이어폰 등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재단, 미주지역 회원 2만명인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와 '찾동' 행사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6.11.(금) 미국 지역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KAGRO) 임원진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찾동' 행사에는 KAGRO 김주한 회장(포틀랜드), 이승수 이사장(필라델피아), 이지니 사무총장(LA)을 비롯한 15명의 지역 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주한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미국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한국식품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생필품 매출이 2~3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판매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KAGRO 회원 2만명은 미국시장의 유통·도매상 업체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국내 한국제품의 미국 내 프랜차이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금년 10.19.(화)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국내 유수의 생산자들과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우수한 한상들이 바이어로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Единая Россия» продолжит реализацию партий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отчитались о работе за год и выбрали делегат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 «Единая Россия» - это самая влиятель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ла в стране.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десь не исключение. Серье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нас стала пандем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и приня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в этот период. В частности,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ли доставлять продукты.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в регионе сильно снизился бюджет, имен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ракц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оддержали намер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хранить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бюджета. Желаю успеха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ах,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отмети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ю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как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партии, так 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лидером стал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о внедрении в регионе единой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ы.

—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итогов своей работы в Думе этого созыва считаю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о том, что 3 сентября теперь День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Вмест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сенатором Григорием Карасиным мы смогли убедить парламент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голосованию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Особо отмечу предлож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 недопустимости отторжения территори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Победител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списку парти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тметил, что все проект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как в регионе, так 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волонтеров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За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добровольцы выполнили более 6 тысяч доставок продуктов и лекарств на дом нуждающимс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м в выявлении дефектов и приемк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дорог. Вносим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новые стандарты содержания двор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жизнь островитян становится комфортнее, — рассказал секретар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брали делегат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артии. Представлять регион будет Елена Сенников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рганизатор ряда проектов.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торжественным вручением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ем.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отличившие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реализации партийных проектов «Наш дом», «Твори добро»,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и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е.

Состоялся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рум по обсуждению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2 год станет юбилейным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нцепцию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чали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ть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волонтерами и всеми неравнодушными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На форум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оржество должно стать всенародным.

— Это праздник н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убернатор призвал обратиться к об-

щественно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собр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екты, идеи людей о том, как провести юбилейный год. Самое главное — это не само торжество, а содержательная часть. Во-первых, история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стровов отдали жизн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Об этом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Во-вторых, юбилейный год дает повод задуматься о будущем, о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комфортнее,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реализацию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запустить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Проект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и вывест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ласти и жителей.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должна получить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С ее помощью можно будет оперативно узнавать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да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место документов. А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к карте позволит оставлять отзывы о получе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услуг.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это наш дом. Мы все — одна семья. И сейчас мы, как настоящая семья, будем собираться и обсуждать грядущий праздник. Кого пригласить в гости, какие подарки дарить? Ждем предложений от все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Юбилейный год должен быть насыщен интересными событиями как для маленьк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ак и для заслуженных земляков,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ено провести три больши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екте семей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В команды объединятся дети, родители,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и попробуют свои силы в районных эстафетах. Лучшие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попадут в областной финал. Конкурс «Трудовые династии» призван рассказать истории семей, в которых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живут и трудятся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аллеи» инициировала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сения Огаркова. Он позволит увековечить имена 75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истории.

Сейчас вед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сай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будут собираться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жителей по проведению юбилейного года и размещаться вся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му производителю кукумари помогли выйти на зарубежный рынок

Морской деликатес, известный как «морской огурец», насыщенный полезными веществами и микроэлементами. С помощь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ая продукция завоевала популярность в Китае и Южной Корее.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ства кукумари непростой.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ый в Анивском заливе «морской огурец» попадает в цех, расположенный у береговой линии. Здесь добытую морепродукцию вручную перерабатывают, варят и сушат. Технология позволяет иглокожим не испортиться в пути.

—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мы планируем открыть свой кулинарный цех.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круглый год, создавать деликатесы и радовать и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требителя. В планах также расширять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сбыта и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изводимой морепродук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помогли нам заключить экспортный контракт. С нуля разработали сайт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и полиграф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 поделилс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АзияИнфо» Артем Потапенко. Найти новых клиентов производитель рассчитыва-

ет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ках. Участие также организуют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компенсируют аренду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е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тенда, оплату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сборов, техническое 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дготовку презен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редоточили в центре «Мой бизнес». О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икрозаймов по льготным ставкам, отраслевой поддержки,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бучения до помощи в выход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С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кукумари мы работаем уже полтора года,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Развити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 том числе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нститутов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напрямую влияют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островах снижа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нагрузка, расширяется имуще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оду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обратная связь. Результат отражает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и оказалась на восьмой строчке.

Отметим,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созда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и оказывает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бизнесменов более 400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Подробнее на сайте или по номеру 8-800-222-0123.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ов закупили санитарные машины повышенной проходимости

Новый спецтранспорт — 9 автомобилей «УАЗ-Патриот» — получат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Охи, Углегорска,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 Машины приобрел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Охинск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Татьяна Супрунова не скрывает радости — сегодня она получила четыре комплекта ключей от машин. Самому северному медучреждению острова досталась наиболее крупная партия техники.

— У нас есть удаленные села — Тунгор, Некрасовка, в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Есть и поменьш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пешком обходят своих пациентов, теперь можно буд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оперативно и с комфортом, — поделилась и.о.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хинской ЦРБ Татьяна Супрунова.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получателей санитарных машин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верные районы острова.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сложными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состоянием имеющегося автопарка на местах.

—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помогает решит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в региона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бнови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автопарка медучреждений.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тоже регулируем этот процесс — после гарантий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эту функцию на себя возьмет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е автохозяй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акже будет создан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чтобы не гонять машины на юг, а своевременно обеспечить ремонт на мест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ближайший месяц ожидается поступление еще более крупной партии — более 20 санитар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Они также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Полностью поставк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88 маши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урция для россиян была закрыта с 15 апреля по 1 июня из-за резкого 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Однако, 31 мая оперативный штаб объявил о продлении ограничений до 21 июня. Сейчас россиянам доступно только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ов в Стамбул. Возобновления авиасообщения ждут к июлю, но никаких гарантий, чт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нет.

Долг туркомпаний перед россиянами за несостоявшийся отдых в Турции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3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Речь идет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о миллионе граждан, забронировавших путевки на курорты популярной страны.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들, 필라테스를 배운다

소셜 피트니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훈련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새로운 방향의 마지막 수업인 필라테스는 4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았다. 주최측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우리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되는 여름 시즌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지인들을 통해 훈련에 대해 알게 되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한 후 다음 수업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려온다. 정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30세에서 70세까지이며, 이들은 아름답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다. 오늘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필라테스는 전신 근육 운동을 위해 고안된 건강 향상 체조이다."라고 소셜 피트니스 프로젝트 트레이너 율리아 스테블란스카야가 말했다.

소셜 피트니스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책임자인 크세니아 오가르코와는 도시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피트니스, 그리고 춤과 요가 무료 훈련을 제공하는 자원 봉사 트레이너 팀을 모을 수 있었다. 오늘날 이 프로젝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달네예의 여섯개 장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셜 피트니스 팀은 운동 유형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필라테스는 20세기 초 요제프 필라테스가 외상 재활을 위해 개발한 훈련 시스템이다. 그는 필라테스가 몸과 마음,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반역학 운동이라고 불렀다. 이는 특히 기성세대에 적합한 느린 속도로 행해지는 특별한 운동이다.

무료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화요일과 목요일 18시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열린다. 운동화, 헐렁한 옷, 수건, 식수가 있어야 하고, 매트 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ки осваивают пилатес

Открытые тренировк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приобрет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горожанок. Последнее занятие по нов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 пилатес — собрало более 40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оздоровительную гимнастику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 Начался активный летний сезон нашего проекта,

люди узнают о тренировках через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кто-то, придя на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риводит своих друз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шим постоянным участникам в среднем от 30 до 70 лет — это прекрасные горожанки, которые стремятся быть красивыми и сохран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 рассказала тренер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Юлия Стеблянская. — Пилатес, основы которого мы предлагаем сегодня, это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гимнастика, рассчитанная на проработку всех групп мышц.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стартовал в 2013 году.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ициативы Ксения Огаркова смогла объединить вокруг себя команду неравнодушных тренеров-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жителям города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фитнеса, а также йоге и танцам. Сегодня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шести площадк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альнем. Команда "Социального фитнеса"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ет над расширением видов тренировок.

Пилатес — система занятий, разработанная Йозефом Пилатесом в начале XX века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сле травм. Автор назвал ее "контрологией", обозначив как полную координацию между телом, умом и духом.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серия упражнений,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ются в медленном темпе, что особенно подойдет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пилатес проходят во вторник и четверг в 18:00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При себе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портивную обувь, свободную одежду, полотенце, питьевую воду, коврик предоставля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장(주필) 배 워크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